

불자 세상보기

남녀 차별적 가치관 빨리 고치자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

“내가 아직 살아 있는 이유는 단지 윤이 좋아서다.” 너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20대 여성을 추모하며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은 포스트잇의 내용들이다. 2~30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강남역으로 나와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글을 쓰고 추모제를 여는 등, ‘강남역 10번 출구’는 여성들의 추모와 저항의 공간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들은 그동안 매스컴이나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던 ‘여성혐오’를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로 만들었다.

사실 그동안 인터넷상에 ‘김치녀(돈 많은 남자만 좋아하는 여자)’ ‘된장녀(명품만 좋아하는 여자)’ ‘김여사(장동차 윤치 시 어처구니없는 사교를 내는 여자)’ ‘삼일한(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 ‘맘충(개념이 없는 엄마)’ 등 여성혐오적인 용어는 널

리 알려져 있었다. 2015년 여성과 관련된 검색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연관이 1위가 폭력·범죄·살인, 2위가 여성혐오·여성비하였으니, 우리 사회에서 여성혐오가 확대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강남 유흥가에서 새벽에’ 발생했던 일부 뉴스의 서술은 피해 여성을 ‘새벽까지 유흥가에 돌아다니는 나쁜 여자’로 낙인찍는다. 착한 여자는 밤이면 집에 있어야 하는데, 밤에 다니는 여자는 유흥가를 찾아다니는 나쁜 여자이므로 처벌받는다(죽을 수 있다)는 남성중심의 성규범을 여성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다.

지금의 2~30대는 딸이라고 차별받던 4~50대와는 달리 남성과 똑같이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으며 성장해 왔

다. 하지만 여풍(女風)을 불러온 악과 곁들은 유리벽과 유리천장에 절망했고, 지하철이나 직장내 성희롱, 소라넷 사이트처럼 일상에서 만연한 성폭력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포임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여성들의 공통된 피해 경험은 집단화된 강력한 연대로 발전하면서 여성혐오 반대를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다. 이 사건이 정신분열증에 의한 문치마 범죄라거나 여성혐오범죄라는 주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지금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게 대우받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구조적인 여성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경전에 의하면 붓다는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고 ‘밧지족의 일곱 가지 불퇴전의 원리’로 가르치셨다. 즉 여자따사투왕이 밧지족을 정복하려 하자, 붓다께서는 밧지족이 자주 모이고, 화합하고, 법을 존중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의례를 준수하고, 거룩한 님을 존중하며, “어떠한 훌륭한 가문의 여인들과 훌륭한 가문의 소녀들이라도 그녀들을 끌

어내어 폭력으로 제압하지 않는다”면 결코 정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여인들과 소녀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면 번영할 수 없으므로 여성 보호는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여성혐오는 단순히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여성 혐오가 없으면 좋고 있으면 할 수 없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여성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여성혐오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붓다의 가르침처럼 국가가 앞장서 성평등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여성혐오에 분노하고, 여성혐오를 혐오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불자라면 국가가 여성혐오 극복에 앞장서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일상에서 자행되는 여성혐오에 동조하거나 묵인해서도, 침묵해서도 안 된다. 여성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성혐오에 분노하고, 여성혐오를 혐오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社說

초심자 안거 이끝 시스템 마련하자

불기 2560년 하안거가 시작된 가운데 부산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재가자들의 안거 동참 열기가 높다. 부산지역에서 2015년 하안거보다 300여 명이 증가한 200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고, 각 지역에서도 시민선원 개설 움직임이 활발하다.

재가자들의 안거 참여는 마음챙김에 대한 현대인들의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 불교계의 재가자 안거 인프라가 취약해, 즉 오래 수행한 이들을 위주로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선원 운영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마음에 맞는 도반끼리 함께 수행하는 문화가 공고하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초심자들이 간혹 선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입문 프로그램은 보기가 중단된 상태다.

부산지역의 확산한 증가세도 매뉴얼에 따른 부산사찰의 합동운영에 있었다.

2006년 조계종 포교원은 간혹선 입문 프로그램과 수행일지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보급은 중단돼 있다.

부처님 재세 시의 일이다. 많은 대중이 몰려있었으나, 부처님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 앞줄에는 출가한지 오래된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자리했고, 젊은 스님들과 초심자들은 대중의 뒤에 자리했다.

부처님이 입을 열지 않으시자 마하가섭이 부처님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부처님은 자리를 비켜 함께 앉았다. 부처님이 법성에 모든 것이 평등함을 보이고 나서 수행력에 따라 무리를 짓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전국에서 일고 있는 안거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보급하고 문화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편 불교문학 발전 초석되길

한국비구니에게 큰 어른인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불교계 장편문학 확대를 위해 ‘법계문학상’을 제정했다. 장편 소설과 장편동화를 시상하는 법계문학상은 평소 문학만큼 불교정신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고 판단한 명성 스님의 뜻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 볼 점은 아직 중단하지 않은 신인과 등단 5년 미만인 작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진 장편작가 양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학상으로는 현대불교문학상과 유심작품상이 있지만 대부분 시와 시조, 평론, 학술 등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또 신예작가들의 등용문인 불교신문 신춘문예는 장편소설과 장편동화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롭게 제정된 법계문학상은 최근 점차 위축되고 불교문학계에 한줄기 단비가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는 매년 우수작품을 선정해 책으로 발간한 계획이어서 작품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다만 기성 문학상들이 짧은 작품에 대해 1천만원 이상의 상금을 수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법계문학상 대상 상금이 1500만원인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원고지 1천매에 달하는 분량을 완성해야 하는 장편소설 특성상 분명 넉넉치 못한 금액이다. 하지만 법계문학상 외에도 불교계 발전을 위해 각종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명성 스님의 큰 원력이 퇴색되선 안 된다. 누구도 쉽게 내리지 못한 길을 열릴 단신으로 개척해나가는 입장에서 큰 짐을 짊어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제 씨앗은 뿌려졌다. 앞으로 불교계가 문학 발전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 씨를 틔울 것인가가 당면과제다.

기자 칼럼

꾸준한 관심이 교과서 바꾼다



문호섭 취재부 기자

“저 선수 정말 ‘교과서’ 같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TV에 중계되는 수많은 스포츠경기에서 해설위원들이 멋진 장면을 설명할 때 주로 쓰는 표현 중 하나다.

학생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교과서. 그 분야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검증된 내용을 전문가들이 서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교과서 같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그만큼 교과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갖게 마련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교과서에 쓰인 불교서술은 전혀 교과서답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고려를 멸망시킨 조선의 시각으로 쓰인 <고려사>에서 신분에 대해 ‘높은 여우의 요정’으로 평가한 것을 그대로 교과서에 실는 것이나 ‘나미야무타불만’ 외면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정도중을 백성 사이에 퍼뜨린 것’으로 원효대사를 설명한 대목 등은 불자라면 누구나 어이없고 분개할만한 내용이다. 제대로 된 설명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교계가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에 서술된 불교 관련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고, 보다 나은 불교서술을 제안코자 지난해 초 구성된 조계종 불교사학회연구소 산하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가 최근 새로운 성과물을 만들었다. 바로 도덕·통합사회 교과서의 ‘2015 개정 교과서 집필 참고자료’를 제작, 한국검정교과서협회를 비롯해 검정교과서 출판사 등 10여 곳에 배포한 것이다. 역사 교과서는 과거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해 참고자료를 만들었지만 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배포하지 않았다.

도덕 교과 참고자료는 각 단원 성취기준에 어울리는 불교 관련 일화를 꼼꼼하게 소개했다. 저학년을 위해서는 성실·예절 등 주제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담았고, 고학년들에게는 불교의 특징을 살려 교리와 행복론, 자연관 등을 설명했다.

통합사회 교과는 인권·자본주의 등과 관련해 불교계 활동 및 소속자족 등의 가르침을 담았다. 물론 이 교과에는 종교적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불교서술이 반영되기 어렵지만 역사·도덕 교과 외에 새로운 분야를 조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큰 기대 없이 배포된 참고자료에 대해 각 출판사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교과서 집필자가 직접 위원회에 연락해 자료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참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있어 그만큼 불교를 잘 아는 이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불교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집필진이 출판사만 탓할 노릇은 아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대중에게 불교를 이해시키려 노력했는지 돌아보는 게 순서다.

과거 8~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출범했던 ‘교과서 위원회’가 제대로 된 성

과를 낼 수 없었던 건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이제는 교과서를 보며 불교를 접하는 새싹들을 위해 눈높이를 낮춰 마주볼 때다. 불교의 제대로 된 이해를 돕는 것이야말로 포교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과서의 오류를 고쳐나가면서 교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우리가 “붓다로 살자”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성도한 후 49일간 해탈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과연 중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수많은 중생들에게 대기설법을 했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과연 불교가 어려운 것일까 아니면 불교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아마도 이렇듯 저렇듯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 모두 관심 갖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 건 아닐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환
 (우)03150 서울특별시 중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인사팀	연락처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락처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락처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 (IBOX)

산조들의 지혜가 특별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에게 원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2자, 태징, 대북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g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